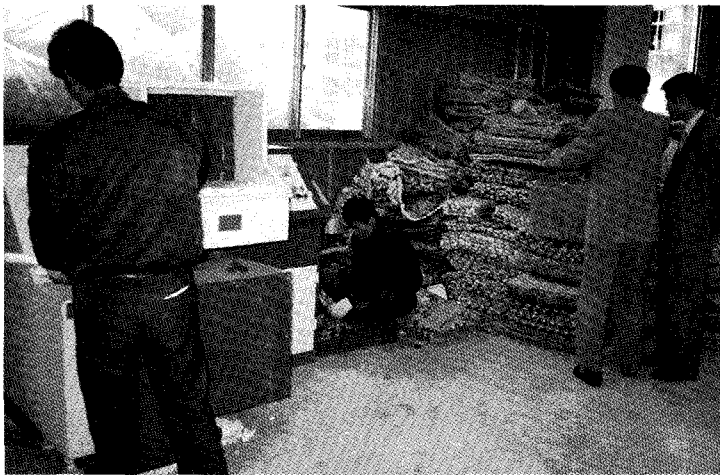


키워드

## '96 상반기 페스티로폴 6,055톤 회수 · 재활용

-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 목표 초과 달성



스티로폴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페스티로폴의 재활용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짐작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는 제도시행 초기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스티로폴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변화와 지자체 및 관련업체가 합심 노력한 결과이다.

올 상반기 동안의 재활용실적과 하반기 협회 및 관련업체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금년 상반기 동안 페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은 6천 55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백20톤에 비해 16%나 증가했으며 금년 재활용 목표인 1만 2천톤의 50.5%를 달성,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표〉 잉고트 생산 및 처분 현황

'96 재활용 목표	'96 상반기 실적	'95 상반기 실적	증가율
12,000 톤	6,055 톤	5,220 톤	16%

이는 지난 3월 페스티로폴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에서 분리·회수·재활용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3월부터 6월까지 약 6백 50톤이 회수 재활용 되었고 가전사와의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처리 협정 이후 가전완충재가 2천 25톤이나 회수 재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용도별 재활용 실적은 전체 6천 555톤 중 재생수지가 4천255톤(66.5%)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량콘크리트 1천2백85톤(21.2%), 접착제, 기타 7백 45톤 (12.3%)을 차지했다.

상반기 동안의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협회는 하반기 동안에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우선 페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가공사 전국 조직을 8월 말경 결성할 예정이며 재생업체의 정보교환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격월간으로 전국 재생업체 회의를 개최하고 감용기 사용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순회하면서 효율적인 감용기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에 농산물 포장규격 표준화를 위한 EPS재질의 연구를 의뢰 포장재의 다양화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며 한국포장학회 국제 세미나 후원 및 환경산업전 참가, 민·산·관 합동 해외시찰, 환경운동단체 지원 및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분리수거 전국실시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